

“고흥 농수산물 독일 식탁에”...500만달러 수출 협약

郡-모모고, 베를린서 MOU 체결
유자·조미김·쌀·건나물 등 공급
현지 소비자 대상 판촉·판매 확대

고흥군이 독일의 아시아 식재료 전문 유통업체인 모모고와 농수산물 수출협약(MOU)을 체결하며 독일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6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2일 독일 베를린에서 모모고와 고흥 농수산물 500만달러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흥 농수산물의 독일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와 장기적 거래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모모고는 베를린에 본사를 둔 아시아 식재료 밀키트 유통 전문기업으로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정식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독일 전역에서 한식과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식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협약에 따라 유자·조미김·건나물·쌀 등 고흥산 농수산물이 단계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공영민 고흥군수가 최근 독일 베를린 시내 유통매장에서 유자·유자차 시식 시음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현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이와 함께 고흥 유자에 생강을 더한 신제품 개발도 논의됐다. 독일에서는 고흥유자가 비타민이 풍부한 천연 건강식품으로 생강차는 면역력 강화 음료로 인식되고 있어 두 원료를 결합한 시범 제품을 먼저 선보인 뒤 시장 반응을 살펴 본격적인 판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군은 협약과 함께 베를린 시내 주요 유통매장에서 판촉행사도 열었다. 행사에서는 유자·유자차 시식 시음과 SNS 홍보, 온라인물 연계 마케팅도 병행됐으며, 현장을 찾은 독일 시민들은 “품질이 신선하고 맛이 뛰어나다”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협약을 계기로 고흥군은 독일 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을 확대하고 현지 소비자 접점을 넓혀 ‘세계 속의 고흥’ 브랜드 가치 제고와 농수산물 수출 기반 강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협약은 고흥 농수산물 독일 현지 식탁에 오르는 첫걸음이자 지역 농어민들의 정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체코와 이탈리아에 이어 독일시장까지 진출한 만큼, 수출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확 기자

‘민생 안정 기조’...담양군 내년 본예산 5천425억 편성

전년비 3.03% ↑ ...생활밀착형 중점
창평시장 재건축·세대어울림센터 등
노인 이·미용비 지원 등 신규 사업도

담양군이 민생 안정을 핵심 기조로 총 5천425억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을 확정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16일 담양군에 따르면 다음 해 예산은 일반회계 5천331억원, 특별회계 9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8억원(2.9%), 12억원(14.6%) 늘었으며, 전체 규모는 지난해 5천285억원보다 3.03% 증가했다.

했다.

그중 2026년 신규 사업으로는 ▲군북부 청년상해보험 지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원 ▲5·18 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원 ▲노인 이·미용비 지원 ▲담양-첨단 시의직행 노선 운행 ▲메타랜드 입장료 상품권 환급 등이 포함됐다.

또한 내년 준공 예정 사업인 ▲창평전통시장 재건축(47억원) ▲세대어울림센터 건립(36억원) ▲가족분노 공동자원화(22억원) ▲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조성(21억원) ▲신계정수장 이전·증설 등 상하수도 사업(16억원)과 2027년 준공 예정인 ▲금성면사무소 신축(48억원)에

자원을 집중 배분했다.

이밖에 군은 6천244억원 규모의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도 함께 제출했으며,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이행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2026년부터 본격 준공되는 만큼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군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엔 제출된 예산안은 다음 달 17일 제34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의결될 예정이다. /담양=정승균 기자

순천만 멸종위기 ‘황새’ 포착...생태 회복 인증

야생 개체 추정...市 전봇대 철거 추진
서식지 확대 자연기반해법 모델 평가

순천만 전봇대 철거로 확보된 서식 공간에서 멸종위기 1급 ‘황새’(사진)가 관찰되며 순천만 생태계의 회복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안동읍 일대 전봇대 제거로 흑두루미 서식지가 확장된 가운데 최근 가락지가 없는 야생 황새가 순천만에서 포착됐다.

황새는 황새목 황새과에 속하는 대형 조류로, 몸길이 110~150cm에 달하며 전 세계 개체수가

약 2천여마리에 불과한 희귀종이다. 이번에 관찰된 개체는 인위적 표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야생 개체로 추정된다.

앞서 순천시는 흑두루미 서식지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안동읍에서 ‘농경지 전봇대 철거 행사’를 열었다. 시는 2009년부터 농경지 전봇대 282개를 철거해 62ha 규모의 서식지를 조성해왔으며, 올해 안동읍 일대 전봇대 49개를 추가로 제거해 약 50ha 규모로 서



식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황새 출현은 순천만이 철새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식 공간으로 복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순천시는 내년도 흑두루미 행동패턴 연구, 서식지 모니터링, 주민 참여형 생태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해 순천만이 ‘생명 회복의 습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전 체계를 더욱 정교화할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흑두루미에 이어 황새까지 찾아온 순천만은 생태도시 순천의 미래 비전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모델로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 보전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정기 기자



보성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정리 총력

2025년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보성군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징수대책 마련에 나선다.

16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서형빈 부군수 주재로 ‘2025년 세외수입·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사진〉

이번 회의에는 서형빈 부군수를 비롯해 세외수입 관련 부서 팀장, 읍·면 지방세 담당 팀장 등 46명이 참석해 ▲체납 현황 ▲월일 분석 ▲고액·고질 체납자 징수 방안 등을 공유하며 효율적인 체납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말 기준 보성군 지방세 체납액은 12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5억원에 달한다.

군은 다음 달 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전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를 단순·생계형·고액·고질 체납자로 세분화해 유형별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단속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탄력적 징수 방안을 적용한다. 반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채권 압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차량번호판 영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성=임병연 기자

장성군 ‘2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
내달 12일까지...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장성군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장성군에 따르면 1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장성군 민선 8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지원 대상은 1985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국내 대학 재학생이다.

신청 기준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C학점 이상 취득 ▲올해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이력 등이 필요하다. 또 보호자가 2022년 11월1일 이전 장성군으로 전입해 현재 주민등록이 장성군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실납부액 기준 학기당 최대 200만원,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한다. 군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국가·교내 장학금이 확정되는 2026년 1월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성=김문태 기자



여수상의 “석유화학 침체...지원사업 속도 높여야”

道·市 정책간담회서 특별법 보완 등 제안

여수상공회의소는 16일 “최근 여수시청 대회 의실에서 열린 전남도·여수시 정책 간담회에서 석유화학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에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하 등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별법 보완과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여수국가산단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지역 내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중요성을 강조하며 활주로 길이(2천100m)로는 국제 화물기 운항이 불가능한 만큼 3천300m로의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문선 회장은 “여수는 글로벌 시장 변화 속에서 산업 구조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와 마주해 있다”며 “지금은 정부·지자체·기업·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경제를 다시 세울 때다. 여수상의도 기업 지원과 정책 제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전선 기자

곡성군 “창업 교육·컨설팅 신청하세요”

20일까지...시장조사 등 실무 중심 교육

곡성군은 16일 “지역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넥스트런(Next Run)’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지역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오는 2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교육은 2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총 16회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고액 분석·시장조사 ▲창업

기초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무 중심의 핵심 주제로 이뤄졌으며, 창의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커리큘럼이 특징이다.

참여자에게는 전문 멘토단의 1대1 컨설팅 5회가 제공돼 ▲사업 아이템 구체화 ▲사업계획서 작성 ▲시장 분석 ▲브랜딩 전략 등 창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체 교육의 50% 이상을 수료하면 2026년 곡성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내 잠재창업자들이 전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화순 어울림센터 편의시설 2실 입찰자 모집

48㎡ 규모 등...17-26일 온비드 접수

화순군은 16일 “화순 어울림센터 내 근린생활시설 2개실의 편의시설 입점을 위해 제한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 대상은 48㎡와 42.6㎡ 규모의 2개 실로, 사용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다. 기본 용도는 소매점으로 공고될 예정이며, 기

존에 운영 중인 커피숍을 제외하고 편의점·미용실 등 생활 편의시설로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

입점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연 사용료와 예정가격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입찰 기간은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개찰은 27일 진행된다. /화순=이병철 기자